

지방자치 이슈&인물

임미란 광주시의원(민주당·남구3)

“주민 소통 강화 생활정치 실현하겠다”

광주·전남 언론 최초로 TV를 출범시켜 융복합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광주 시민의 교육과 문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에는 부의장, 후반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각각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기억에 남는 대표 발의안 등을 소개한다면.

-8대 광주시의회 들어와 대표발의한 조례가 30건 정도 되는데, 학교 급식에 위해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용 못 하도록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전자 조작 식품 GMO 퇴출이며 유전자 조작식품 GMO 퇴출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에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 한미FTA와의 이해충돌 등으로 중앙정부와 조율 등 법적 문제가 있었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조례로 제정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어서 인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지난해 여의도정책연구소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이행률, 출석률, 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발의실적,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활동, 위원회 활동, 지역민원 및 현안 발굴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통계점수에 의한 1차 심사와 2차 정량자로 심사, 3차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수상자로 선정했다. 비결은?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하반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교육정책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와 민생에 꾸준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 안전과 학생 교육·건강 증진조례, 4차산업 육성 지원조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자료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좋은 평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위한 정책개발 주력
비대면 온라인교육 특화 미래교육 중심지로

가를 받은 것 같다.

▲내년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8대 시의회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과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광주시가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도시 스마트시티로 가기위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미래포럼을 창립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한번 더 시의원에 도전해서 일을 완성하고 싶다.

▲광주 남구 발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는데, 남구 출신 시의원 입장에서 남구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면.

-광주지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4곳 중 2곳이 대촌동 일대로 지정됐다. 남고

오래된 송암산단에는 1천46억원 규모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조성되는 등 CGI센터 권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투자진흥지구가 확대 지정됐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호남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교육을 견인하는 교육특구로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특화시키는 미래교육 중심지로 가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시가 될 것이다.

▲예비 출마자로서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다, 주민들과 만나서 일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동네, 남구, 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듣게 된다. 소통을 통

해 생활정치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각종 언론사 아카데미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 하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열심히 교류하고 있다.

▲예비 경선에서 이길 자신만의 비책이 있는가?

-특별한 비책은 없다. 다만 지역구 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비책이라면 비책이겠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현재 집행부의 가장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민선7기 광주시의 문제라면 시민 소통에 치우치다 보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통과 정책적 결정에 균형을 맞추는 균형행정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대표 공약 2-3가지만 말한다면?

-시 의원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광주시 통합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복지 허브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푸른길 주변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관광길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지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 완료했고 푸른길 주변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관광길 조성은 토요장터와 푸른길 스트리트 푸드존을 통해 푸른길 문화벨트를 조성 중에 있다.

▲MZ세대, 즉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개인주의, 공유문화, 동영상 선호하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과 문화를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많은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소비성향이 뚜렷한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성과 소통, 통합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끝으로 광주시민과 남구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남구가 광주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씩 힘을 모아 함께 나가자. /이종형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여수에 화학산업 탄소중립 거점 조성

도·화학연구원·여수시 '연구원 전남 조직 설립' 협약

전남 화학산업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여수에 건립된다.

전남도,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시는 25일 여수·광양산단을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여수) 조직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남 조직은 2022년 여수국가산업단 인근 삼동지구 2만349㎡ 부지에 국내 유일 화학 분야 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이산화탄소 표집·활용(CCU) 실증센터 등 2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구인력 40여명이 상주한다.

전남도, 화학연구원, 여수시 등 3개 기관은 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의 토대가 되는 1단계 사업으로 283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석유화학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0억원이 소요될 2단계 사업 'CCU 실증센터'와 관련,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이 설립되면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개발, 산업수요 맞춤형 화학소재 실증 양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실증을 통해 상용화로 연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협약이 산업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개발 토대를 구축해 석유화학·정유·철강산업을 탄소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화학연구원 전남 조직은 화학 관련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황 확인하세요”

건설본부, 시 홈페이지에 공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6일 2호선 건설 과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구간 별 공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 정보는 시 홈페이지 '분야 별 정보-도시·건설-도시철도건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는 2호선 추진 개요와 추진 현황, 1호선 건설 자료 등이 담겨 있다.

본부는 지난 5월부터 월 평균 20건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 구간 확대에 따른 진행 상황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도로 점용 기간 등 공사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종형기자

올해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폐막

'다시 전남'을 주제로 목포에서 열린 제25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도민의 자부심과 화합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25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행사 기간 전의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과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선 '오늘도 민특강'은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와 알려지지 않은 전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 함께한 '스포츠 스타와 1일 멘토링'은 지역 축구·야구 유소년의 열된 참여 속에 꿈나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25일 기념식

서는 시장·군수, 전남도의원, 시·군의원,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각 지역 대표와 도민, 향우가 한마음이 돼 전남인의 단결을 과시하고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성공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2021년 전남을 빛낸 인물 9명에게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시상했다. 전남인상 수상자는 ▲경제 분야=정철섭 ㈜승진엔지니어링 대표 ▲문화·관광·체육 분야=장영인 순천대 명예교수, 하철경 호남대 교수, 신정식 전남 축구협회장, 염혜선 대전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 선수 ▲사회봉사 분야=이귀남 전남도세마사회 회장, 양광용 약산교육문화재단 이사장, 김상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기타 분야=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등이다. /김재정기자

Advertisement for Sunhae Life Insurance featuring a man and woman holding a large check, with text: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and Sunhae Life Insurance logo.